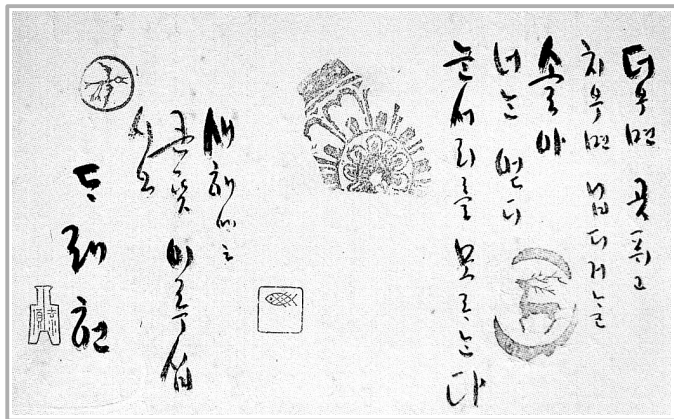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法頂스님 禪墨展 중

2011

辛卯年

새해에는 눈을 떴으면

새해에는 눈을 떴으면 좋겠다.
기술 문명의 틈바구니에서 시들어가는
인간의 영역이 새롭게 움텄으면 좋겠다.

물량의 집적만이 인간을 잘살게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제,
밖으로 밖으로만 향하던 우리들의 시선이
안으로도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소음과 광란에 젖은 우리들의 귀를
안으로 돌려 인간의 가장 깊숙한 데서
울려나오는
그 소리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

인간의 분수를 헤아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슬기롭게 가늠했으면 좋겠다.

<法頂 / 영혼의 모음>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1 / 1

다시 읽는 산방한담 / 범정	4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는가
이달의 법문 / 덕현	6	멈춰라
생명칼럼 / 우희중	11	불교적 생명 - 비폭력과 치열한 참여
산골만화 / 정태경	13	욕심
채식으로 세상 보기 / 이성학	14	짐승을 다 건지오리다
생태 돋보기 / 최원형	16	'생태'의 다른 표현, '자비의 실천'
사색의 뜰 / 문현철	19	소중한 인연, 과분한 사랑
시심청심(詩心淸心) / 허태기	24	시(詩)가 흐르는 길상사
맑고의 나눔 현장 / 박지연	26	아름다운 만남, 감성을 열어주는 곳
봉사하는 사람들 / 노현선	30	니를 찾기 위한 연습
길상사 교육 후기 / 김여정	32	2010년 불교를 만나다
나누는 기쁨 / 각 봉사모임	34	12월 활동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37	서울모임
	43	부산, 대구, 경남, 광주모임
여기는 길상사	45	1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이런저런 얘기	48	달력 이야기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1년 1월 1일 발행 / 통권 191호 / 등록번호 리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여운원 / 편집장 이성학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원 /
인쇄처 농인전산품 / 부산모임 : (051)898-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17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053)753-8883 / <http://www.cleam94.or.kr> E-mail : cleam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는가

「오두막 편지」 중에서

法 頂 (스님)

… (중 략) …

어느새 목은해가 기울고 새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해가 바뀌면,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한 해가 보태지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한 해가 줄어든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인가. 보태지는 쪽인가. 줄어드는 쪽인가.

그러나 보태지고 줄어드는 일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는 육신의 나이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최대한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세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자신답게 살아간다.

삶은 끝없는 변화이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우리 자신과 세계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수시로 변해가면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한 숨 한 숨 들이쉬고 내쉬는 생명의 숨결도 흐르는 강물처럼 낡은 것과 새 것이 잇따르고 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흐름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목표도 지향도 없이 어디론지 끌려가고 표류하고 만다. 덧없는 세월 속에서 의미 없는 삶으로 막을 내린다면, 우리 인간사가 너무도 허무하지 않겠는가.

우리 시대에 이르러 인류가 쌓아올린 문명은 그 중심을 잃은 채 휘청거리고 있다. 당당

한 인간으로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인간들 스스로가 그 설 자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의 고리가 튼튼하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개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를 물을 것 없이 조화와 균형이 곧 건강이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사회는 그 조화와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현대인들의 가슴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삭막해서 생명의 싹이 움틀 여지가 없다는 소리다.

가슴은 존재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가슴은 모든 것의 중심이다. 가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신비인 사랑도, 다정한 눈빛도, 정겨운 음성도 가슴에서 싹이 튼다. 가슴은 이렇듯 생명의 중심이다. 그 중심의 기능이 마비된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른다.

오늘의 문명은 머리만을 믿

고, 그 머리의 회전만을 과신한 나머지 가슴을 잃어가고 있다. 중심에서 벗어나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가슴이 식어버린 문명은 그 자체가 크게 병든 것이다.

비인간적인 이런 수렁에서 헤어나려면 우리 모두가 저마다 따뜻한 가슴을 되찾는 길밖에 없다. 물질의 더미에 한 눈 파느라고 식어버린 가슴을 다시 따뜻하게 가꾸어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따뜻한 가슴만이 우리를 사람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다.

따뜻한 가슴은 어디서 오는가. 따뜻한 가슴은 저절로 움트지 않는다. 이웃과의 정다운 관계를 통해서, 사물과의 조화로운 접촉을 통해서 가슴이 따뜻해진다. 





멈춰라

德賢 (이사장)

은 가을 길상사에서는 갓 창단한 국군오케스트라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과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등을 놀랄 만큼 멋지게 연주했다. 그 연주는 아직 분단시대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감성을 높이 승화한 눈물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서해 연평도에선 또 포화가 피어올랐다.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나도 남쪽과 북쪽은 서로를 향한 적의를 멈추지 않는다. 이 반도에서 한때 젊었던 그들은 서로에게 겨는 총칼을 내려놓지 못하고 늙어간다. 앞 세대들은 싸우다 더러 죽었고 살아남은 자도 세월이 가면서 하나 둘 죽어간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서로의 시체 너머로 허황된 무지개를 보고 있다.

산길을 걷는 것과 밋밋한 평지를 걷는 것은 다르다. 대개 산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터덜터덜 걸 수 없다. 가벼워진 심신에 카타르시스를 주는 아다지오로, 뚜벅뚜벅 체중과 힘을 실어 오르내리게 된다. 호흡은 깊어져 가슴 가득 맑은 공기가 들고나고 심장은 고요한 기쁨과 열정으로 박동한다. 직립보행(直立步行)하는 인간의 존재감을 새삼 일깨우는 건기. 도시의 포도를 배회할 땐 금세 지치지만, 산길은 오래 걸어도 진 빠지지 않는다. 하반신으로 차오른 기운은 걸을수록 단전에 모이고 조심조심 올라서는 걸음을 살피며 걷다가 문득 돌아서서 멀리 시선을 펼치면, 가벼워진 어깨는 매의 날개처럼 바람을 눌러 타고 장천(長天)을 저어 날 듯하다.

수요일 아침이면 좌선반 사람들과 더불어 성곽길을 돈다.

무학스님은 새 왕조의 주인 이성계와 함께 저 산봉(山峰)에 올라, 봄별에 눈 녹은 산자락을 따라 새 도읍을 에워싸고 지킬 산성을 쌓게 했다.

작지 않은 돌들을 다듬어 정교하게 짜맞춘 성곽은 이제 외적을 막는 울타리가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행선(行禪)하는 무학(無學)의 후예들이 돌레를 거닐며 마음의 적을 싸워 물리치는 길이 된다.

좌선반의 선여인(善女人)들이 목조 전망대의 테이블 위에 내려쬐인 사라기눈을 털어내고 지고 온 음식을 차렸다.

“수행자들에겐 밥보다 법이 먼저니까, 오늘은 드시기 전에 법담(法談)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 정진 잘 되세요?”

“아니요…….”

“선주보살님, 저만큼 걸어갔다 와 보세요.”

“……?”

“무엇이 걸어갔다 걸어 왔어요?”

“제가요.”

“그 제가 뭐예요?”

“……”

“고봉(高峰)스님은 선요(禪要)라는 어록(語錄)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그토록 애를 쓰는데 도를 이루는 이가 참으로 적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번뇌 망상 때문인가, 업장이 두터워서인가, 경계에 팔리고 속기 때문인가, …공부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해서인가? 다들 이보다 훨씬 더 큰 장애를 물리치지 못해서이니 그것은 삼조연하(三條椽下) 칠척단전(七尺團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삼조연하 칠척단전에 무엇이 있을까요? 옛날 선방에서 한 스님이 앉는 자리 위엔 서까래 세 개가 지나고 한 사람 앉는 포단의 길이는 칠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서까래 아래, 칠척의 포단에 있는 것은 수행자 자신 혹은, 수행자의 몸뚱이를 가리키죠.

여러분, 불교수행은 마음공부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닦아 마음을 쉬고 마음을 깨닫는 일. 몸뚱이 하나 가지고 살아가기도 참 버거운

일이지만, 이 몸뚱이 가지고 수행을 하려들면 온갖 장애가 주렁주렁 따라옵니다. 우선, 몸뚱이를 놓아버리고 마음으로만 마음을 챙겨 정념(正念)을 이뤄 보세요. 몸뚱이가 스스로 걸어왔다 걸어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고 마음이 가는 것 아닌가요?”

차려진 음식은, 겨우 마당만한 서해의 한 작은 섬에 간월암(看月庵)을 짓고, 끼니를 잇기 어려워 갯바위에서 굴을 따 드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님이 고기를 드신다고 책망하자, “이것은 고기가 아니라 돌에 핀 꽃, 석화(石花)요.”하고 받아넘기던 무학대사(無學大師)는 물론이고, 온 백성이 꿈꾸었을 북벌의 꿈을 배반하고 왕위를 차지한 이태조(李太祖)도 먹어보지 못했을 법한, 21세기의 성찬이다. 블루베리 케이크, 깎은 생밤, 바리스타가 신심을 기울여 타운 커피, 산수유차……. 수라상보다 감동적이지만, 아직 무학(無學)에 이르지 못한 후학들에겐 감사하고 황송할 뿐인 식탁이다.

“내려가기 전에, 저길 좀 보세요. 저어기, 보현봉 아래 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하얗게 서 있는 게 뭐죠?”

“불상 같아요. 분명 부처님인데, …… 관세음보살님인가?”

“저건 돌이에요.”

모두 웃는다.

“저 돌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부처님입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아, 십일면관세음보살(十一面觀世音菩薩)님이시네요!”

짜락눈을 맞으며 미소 띤 십일면관세음이 하산을 시작한다.

지난 가을 단풍 사이로 우리는 포행정진을 시작했었다. 늦은 계절엔 멀리 따듯한 새 하늘 아래로 안행(雁行)해 가는 물오리나 기러기들을 바라보기도 했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채 오르기 전에 달력보다 빨리 겨울이 왔고 가을빛처럼 약간 들떴던 마음은 서너 번 만의 산행에 겨울의 침묵으로 가라앉았으며, 이젠 눈발처럼 가벼워졌다.

성북천의 발원지 언저리를 지나오다 마른 갈잎에 희미하게 짜락눈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돌아선다.

“산죽 숲에 싸락눈 내리는 소리 아세요? 살다가 언젠가 이 소리를 듣게 되면 누구라도 불식간에 걸음이 멈춰 서게 될 거예요.”

포리스트 검프(Forrest Gump)! 그 멋진 영화 끝부분에 나오는 장면, 평생 달리기로 일관한 주인공이 달리는 구루(Guru, 정신적 스승)가 되어 수많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갈기를 휘날리며 하염없이 달려가다 문득 멈춰서며 하던 그 독백이 떠올랐다.

“……내가 왜 달리는 거지?”

잘 걷지 못하는 장애를 타고 태어나 다리에 차고 있던 보행보조기구를 풀어 던지고 뛰기 시작한 이래 포리스트 검프의 달리는 이유는 오직 ‘자유’였고, 말 이전의 그것은 그의 종교였으며, 그 열매는 기쁨이었다. 그런데 그 달리기가 문득 죽은 종교가 되려 하자 검프는 문득 멈춰 섰다. 왜 나는 이렇게 달릴까?

양굴리말라[脂鬘: 손가락목걸이라는 뜻]는 칼을 빼어들고 자신을 낳아준 여인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이미 아흔 아홉 명을 죽이고 그 엄지손가락을 잘라간 살인마가 두려워 온 성안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아걸었을 때 오직 그 어머니가 있어 아들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본래 천품이 선량하기 그지없었고 도를 구하러 출가까지 했던 아들이 저지른다는 그 연쇄살인극을 그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의 마지막 백 번째 살인은 그녀로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대상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때, 세상일을 다 아는 분[世間解]이시고 열반에 완전하게 이르신 분[善逝]이신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구도의 열정은 불길처럼 강렬했지만 선근이 부족했고 지혜가 모자랐던 양굴리말라는 아직 도업을 마치지 못한 외도 스승의 제자가 되었다. 그 스승의 아내가 매우 기품 있고 준수한 용모를 가진 젊은 제자를 연모하여 유혹했다. 그 유혹은 전혀 통하지 않았고, 연모의 정은 즉시 원한으로 돌변해 양굴리말라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기에 이르렀다. 소문은 출중한 제자를 시기하던 많은 다른 제자들의 입

을 통하여 스승에게 전해졌다. 스승은 사실 그 소문이 믿기지 않았으나 자신의 체면을 지키면서 교단에서 앙굴리말라를 흔적 없이 축출할 계획을 찾기에 골몰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제자를 불렀다.

“정말 뛰어난 수행자인 네가 해탈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너의 그 자비심 때문이다.”

“자비심을 버려야 합니까?”

“버려야 한다.”

“어떻게 해야 자비심을 버리게 됩니까?”

“그것은 쉽지 않다. 다행히 내게 신묘한 방법이 있다. 이 길로 거리에 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라. 죽인 사람마다 그 엄지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드는 것이다. 백 번째 사람을 죽여 목걸이를 완성하여 목에 거는 순간 너는 해탈하게 될 것이다.”


오직 성취를 바라는 앙굴리말라의 순진하고 어리석은 목마름은 그 스승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그대로 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치열한 구도심은 어머니를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악업을 저지르기 전에 위없는 스승[無上師], 세존(世尊)의 자비심에 가 닿았다.

이제 앙굴리말라는 자신의 어머니를 가로막고 선 사문, 부처님을 향해 덤벼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달려들어도 고요히 서 있기만 하는 사문과의 거리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살인마는 칼을 치켜들고 더욱 무서운 기세로 돌진하는데, 거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게 섰거라, 사문아! 멈춰라, 멈춰 서!”

그러다 문득, 손가락목걸이를 목에 거는 일을 해탈이라 믿었던 미친 구도자는 힘없이 칼을 떨어뜨리며 순간적으로 광기에서 깨어났다. 미동도 없이 서 있던 그 부동심과 자비심의 완성자에게서 온유하여 진실로 강한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멈춰 서지 못하는 것은 네 마음이 아니냐?”

그 길로 삼보에 귀의한 앙굴리말라는 벗어나기 어려운 무거운 죄업을 벗고 머지않아 삼계의 해탈자, 아라한이 되었다. 



불교적 생명 - 비폭력과 치열한 참여

우 희 중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생 명존중과 비폭력이 불교의 기본적 입장이고,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우러나오는 자타불이와 동체대비에 근거한 자비심의 소중함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또 이런 가르침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연기법에 대한 통찰임은 확실하다. 연기법을 요즘 말로 바꿔본다면 상호관계성이다. 뿐만 아니라 불자라면 세상이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세상의 인드라망 구조에 대한 언급에도 친숙할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공(空)에 대한 이치가 나오며, 무아(無我)와 무상(無相)도 이야기됨을 안다.

결국 세상을 이루고 있는 관계성에 대하여 통찰할 때 비로소 불교적 세계관과 생명관은 제자리를 찾는다. 물론 모든 존재는 관계로 이루어졌기에 그러한 관계를 벗어날 수도 없으며, 고정된 실체로 있을

수도 없고, 펼쳐진 삶의 현장에서 관계로 인해 형성되어 간다. 따라서 불교는 감각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형성된 우리의 표면적 인식 체계를 넘어서서 세상의 연기적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본래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게 된다.


존재의 관계성에 대한 무지(無知)로 인해 나타난 왜곡된 관계는 모든 존재의 불필요한 고통의 원인이다. 이를 다시 말한다면, 서로 상의 상존하며 변화해 가는 관계에서 바람직한 관계의 왜곡이나 단절을 통해 타자를 대상화시키는 것이 폭력이며, 이러한 폭력은 폭력을 수용해야 하는 대상에게는 억압으로 나타난다. 고통은 폭력적 상황에 의해 발생하기에 불교는 비폭력일 수

밖에 없다.

한편, 불교적 생명이란 관계 그 자체이고, 삶도 정치라고 불리는 일종의 관계 덩어리에 불과함은 앞의 글에서 강조했다. 그러므로 불가의 생명존중과 비폭력은 같은 말이다. 생명존중이란 비폭력의 표현형이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안팎으로 단절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다. 전도몽상된 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수행은 삶의 현장에서 바람직한 관계맺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함을 말한다. 그것은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방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 주변의 억압받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하는 참여의 삶이야말로 부처님이 가르쳐준 연기적 생명관의 발현이다.

비폭력을 위한, 비폭력을 향한, 비폭력 그 자체는 너와 나의 바람직한 관계 회복을 위한 능동적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 따라서 고통 속에 힘들어 하는 생명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참여이자 비폭력이며 그것이 곧 생명이다. 이러한 생명의 무한한 다양성과 살아서 변화하는 모습에 깨어있게[不昧因果]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안주할 수 없다. 남은 것은 삶의 현장에서 더욱 치열한 참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불교적 생명이 아름답게 꽃피우는 자리이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 불은 힘들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기보다 이념이나 정치권력의 안정을 위해,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기보다는 결국 자신들의 집단이심을 위해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탐욕은 교묘히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고 은폐되어 있다. 시대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이런 인간 욕심 때문에 더욱 더 네 안에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살아 있는가? 너는 깨어 있는가? 이웃의 흐르는 눈물이 네 가슴을 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바로 불교의 생명이 되는 이유이다. 



욕심 정태경



떨감을 위해
부러지거나 간벌한 나무를
찾던 중 월척을 발견했다.

흔저서 나르기에 너무 크다.
그래도 포기하기에
아깝다.



무리를 해서
운반해 보려다
허리에
무리가 갔다.



떨감은커녕 허리를 부여잡고
겨우 집에 돌아왔다.
욕심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억울한...



짐승을 다 건지오리다

이 성 학 (기획실장)

본교 법회의 마지막은 사홍서원(四弘誓願). 그 첫 번째는 중생무번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이다.

그런데 중생은 무엇인가? 중생은 짐승을 포괄하는 말이다. 짐승은 중생에서 유래되었다. ‘중생 → 짐승 → 짐승’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세상은 인간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장(場)이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화와 균형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짐승을 보호하면 좋은 업이, 학대하면 나쁜 업이 인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인과법칙일 것이다.

최근 구제역(口蹄疫, foot-and-mouth disease)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축들이 살처분 생매장 당하고 있다. 발굽 2개인 소·돼지 등의 입·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고, 40℃가 넘는 고열로 시달리다가 거품 섞인 침을 흘리다 죽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 구제역. 전염 속도가 매우 빨라 신속성을 요하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에 감염되거나 접촉된 가축을 모두 소각처분해야만 한다니 이를 실행해야 하는 사람들도 비애스럽기만 하다.

11월 말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북, 경기, 강원에 이어 이제는 충북에까지 번져 한 달여 동안 살처분된 짐승이 40만 마리가 넘었다고 한다.

가슴이 아리다 못해 ‘생명’에 대한 근본적이고 깊은 성찰을 하게 된다. 축산농가의 재산상 손실과 시름도 쉽게 치유될 것 같지 않고,

살처분 현장에 참여한 공무원들도 그 충격 때문에 후유증을 앓고 있다. 농부는 자기도 함께 물어달라며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다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고, 소를 안락사시킬 주사기를 든 공무원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며 울면서 바늘을 찌른다고 한다. 특히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짐승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실상 생매장을 하므로, 그런 짐승들이 살려고 버둥거리는 장면을 볼 때는 식육상실과 함께 악몽에 시달린다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가축을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 개와 소, 말, 돼지 같이 한 집에 사는 가축을 가족처럼 대했다. 가축을 잡는 백정(白丁)은 소를 잡기 전에 깨끗이 몸단장을 하고 축문을 외우며, 고통 없이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며 마치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경건하게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다.

뿐만 아니라 산이나 들에 사는 짐승들의 경우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잡지 않았다. 사냥꾼처럼 생존과 생활을 위해 사냥을 해

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죽이는 숫자도 미미했다. 백제 제29대 법왕은 즉위한 해(599년) 겨울, 살생을 금하는 명을 내려 민가에서 기르는 매들을 놓아주게 하고, 고기 잡는 도구를 태운 뒤 일체의 살생을 금하였다. 그래서 뒷날 시호도 법왕(法王)이라고 불리었다.(삼국유사 권3)

호주의 동물학자 피터싱어(Peter Singer)는 1975년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을 통해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은 ‘종차별주의(Speciesism)’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공리주의자인 그는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에 의해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차별주의’는 마치 ‘성차별주의(sexism)’나 ‘인종차별주의(racism)’와 같은 논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참고할 만한 의미심장한 주장이다.

사람과 짐승 모두의 상생(相生) 해법은 무엇인가?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짐승을 다 건지오리다! 



‘생태’의 다른 표현, ‘자비의 실천’

최 원 형

법명 심지명. 맑고 향기롭게 회원. EBS와 KBS에서 방송작가로 일했고, 「도시에서 생태 감수성 키우기」(랜덤하우스코리아)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이천 십일 년, 일월입니다. 벽엔 새 달력을 걸고, 새해엔 기대를 걸어볼까요?

깨끗한 달력에 적혀 있는 ‘1’이란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새로움, 설렘, 기대감, 뭔가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는 그저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도 맞이하는 느낌은 분명, 다릅니다. 무엇이 그런 느낌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우린 12와 1이란 숫자 틈에서 감정을 다르게 경험하는 건 아닐까요? 만약 달력이란 것이 끝도 없이 이어진 숫자의 연속이라면 우린 대체 어느 시점에

서 숨 한 번 고르고 맘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대략 365일마다 한 바퀴 돈다는 사실이 무척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생태 돋보기! 저도 잠깐 숨고르기 하며 생태란 말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생태’란 말의 뜻을 좀 더 일찍 살펴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저런 자료에서 ‘생태’의 의미를 찾아보니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태 관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개는 교육, 관광, 환경 등의 낱말과 뒤범벅이 된 채로 말입니다. 무엇이 생태인지조차 가늠하기가 어지러울 만큼 우리 생활엔 생태란

조건 없는 자비를 행할 때 생명 있는 그 무엇과 무엇이
비로소 생태적인 삶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 없는 자비의 행은 생명 있는 그 무엇과 무엇이
서로 조화롭게 사는 일 일겁니다.

날말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반생태적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엔 제가 갖고 있는 세 권의 국어사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희승 국어대사전(민중서관, 1961년 초판 발행)에는 “**생태** 살아가는 모양, 생활하는 상태”, 동아새국어사전(동아출판사, 1989년 발행)을 찾아봤더니 “**생태** 생물이 자연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DESK국어사전(금성출판사, 1997년 초판)에는 “**생태**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 생물의 생활상태”라고 나옵니다. 지금부터 50여 년쯤 전에 쓰였던 생태의 뜻은 지금보다 조금 넓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 듯합니다. 언어가 사회성을 갖다보니 개발바람이 불던 때와 발맞추어 생태란 말에 생물이란 범위를 애써 넣으며 좀 더 한정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 같군요.

세 권의 사전을 뒤적거리다보니 두 세대를 넘나드는 시간의 이쪽과 저쪽을 들여다 본 것 같습니다. 1961년에 초판된 사전에서 밝혔듯, 생태는 살아가는 모양, 생활하는 상태인데 그렇담 그 주체는 누굴까요? 아마도 그 후에 나온 사전에서 밝혔듯 생물이겠지요. 짧게 결론을 지어본다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모양, 생활하는 상태를 일컬어 생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것들이 살아가는 모양 혹은 생활하는 상태란 어때야 할까요? 평화로워야 할 것 같고, 행복해야 할 것도 같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길 기대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만 봐도 언제나 행복하길 원하니깐요. 제 자신을 확장해보면 우주 안에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과 대등하게 맞닿아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


명 있는 것들은 행복하길 원할 거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결국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할 수 있는 상태가 최상의 상태, ‘최상의 생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기 경전인 스타니파타 자비편에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치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게 한없는 자비심을, 더불어 온 세계에 대해 어떤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그렇듯 조건 없는 자비를 행할 때 비로소 생명 있는 그 무엇과 무엇이든 비로소 생태적인 삶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 없는 자비의 행은 생명 있는 그

무엇과 무엇이 서로 조화롭게 사는 일 일겁니다.

조화로운 삶으로 평생을 살았던 스콧 니어링은 농장에서 채소 이외에 닭조차 키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달걀을 빼 먹는 일조차 일종의 착취로 보았다니 말입니다. 착취가 아닌 평등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자비로운 삶이 아닐까요. 스콧 니어링의 삶의 방식에 동의하던 그렇지 않던, 최소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생명들에 대해 동등하고 공정한 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정한 행이란, 살아 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배려의 다른 표현으로 자비의 실천은 어떨까요. 되돌려 받는다는 마음 없는 무한한 배려. 쉽지 않은 말이지만 새해에는 내 둘레의 생명들에게 무한한 자비를 실천하는 ‘내’모습에 기대를 걸어볼까 합니다. 시린 하늘을 헤엄치듯 날아오르는 직박구리가 언제든 우리와 함께 지구별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소중한 인연, 과분한 사랑

문 현 철 (초당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전 남 화순이 고향인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어린 광주로 올라와 전남대학교 사대부고에 진학하였다. 그런데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성적도 좋았던 중학교 때와는 달리 자꾸만 돌아가신 아버지와 눈물로 이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에 대한 생각, 부모님을 대신해 정성껏 보살펴 주신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겹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고 성적은 자꾸만 떨어졌다. 그렇게 방황하던 나에게 어느 날 상담선생님이 법정 스님의 『산방한담』이라는 책을 주셨다. 그 책을 하룻밤에 다 읽은 나는, 책을 읽는 동안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글을 읽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던 나는 당

시 광주에 새로 생긴 ‘베토벤 클래식 음악 감상실’을 자주 들르곤 했는데, 그날도 전원 교향곡을 듣고자 베토벤 음악 감상실을 찾은 날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스님 한 분이 앉아 계셨다. 자세히 보니 법정 스님이신 것 같았다. 나는 뚜벅뚜벅 스님이 앉아 계시는 테이블로 걸어가서는 무턱대고 ‘혹시 법정 스님 아니십니까? 스님이 쓰신 책을 읽었습니다. 스님께서선 생님이 되지지 않고 왜 스님이 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렇게 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때만 해도 법정 스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실 분이라고는 꿈에도 모른 채 당돌한 질문들을 퍼부었고, 스님은 간간한 분 같았지만 따뜻한 모습으로 내 질문에 답을 해 주셨다.

광주 남동성당에서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있던 나는 고3이 되어 '빅토리노'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그날 밤 자취 집을 옮기다 교통사고가 나서 3주 동안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다.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 나는 무슨 생각이 그랬는지 무작정 김수환 추기경님을 만나기 위해 서울행 기차를 탔다. 그리고 명동성당에 가서는 추기경님의 비서 신부님에게 거의 다섯 시간을 농성하다시피 해서는 결국 추기경님을 만나 뵈 수 있었다. 나는 추기경님을 뵈자마자 세례 받은 날 왜 교통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하느님은 정말 계시는 것인지에 대하여 여쭙었다. 한 고등학생이 무작정 찾아와서는 무례하게 던진 질문에 너무도 진지하게 그리고 정성껏 나를 맞아 주신 추기경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추기경님을 뵈고 서울에서 광주로 향하던 나는 갑자기 법정 스님 생각이 났다. 다음 날 나는 학교를 가지 않고 스님이 계신 불일암으로 갔다. 그러고는 추기경님께 물

었던 것처럼 왜 세례 받은 날 하필 교통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사고의 순간을 확 물리쳐 주지 않으셨는지에 대하여 스님께도 물었다. 스님은 “하느님은 그렇게 만화책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내 마음을 다 읽고 계신 것처럼 편안하게 웃으시며 나에게 대하여 이것저것 물어 보셨다. 그 후로도 나는 계속 마음이 잡히지 않는 고질적인 마음의 병을 앓을 때면 스님을 만나러 불일암을 자주 오르내렸다.

경제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던 나는 대학 입학 을 포기하고 있다가 할머니의 독려로 부랴부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조선대학교 법학대학에 입학했다. 할머니는 어디서 구하셨는지 등록금을 만들어 주셨지만 할머니가 천신만고 끝에 구하신 등록금으로 공부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고 다음 학기도 걱정이 되어 학교를 그만 두고 취직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고는 스님을 찾아가 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여

어느 날 스님께서 내게 등록금 고지서를
베토벤 음악 감상실에 두고 가라고 하셨다. ...
3학년이 되어서는 내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을 더 추천하라고 하셔서
그 친구들과 함께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쭈었다. 내 이야기를 꼭 듣던 스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 그리고 스님은 “너의 천주님께 100일 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 보아라. 그러면 분명 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스님은 그 후로도 내게 여러 차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인생사에 대하여 아버지 같은 말씀들을 해 주시며 부족한 내게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어느 날 스님께서 내게 등록금 고지서를 베토벤 음악 감상실에 두고 가라고 하셨다.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던 나는 풍족하게 사는 분이 아니신 스님이 얼마 되지 않는 원고료로 내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자 하신 것임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후 음악감상실의 사장님은 스님의 업명을 받으셨는지 매학기 초가 되면 나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가져 올 것을 중

용하셨고, 3학년이 되어서는 내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을 더 추천하라고 하셔서 그 친구들과 함께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스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러 불일암에 가면 스님은 영똥한 말씀을 하시거나 꾸중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스님의 꾸중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토록 잡히지 않던 마음의 병이 점차 치유되기 시작하였다. 스님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 준비를 하던 나는 불일암에 내려갔으나 스님을 뵈 수가 없었다. 강원도 어느 오두막으로 떠나셨다는 것이다. 스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들만 늘어놓으며 때를 쓰고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스님의 수행정진에 큰 방해만 드렸다는 자책감이 나를 괴롭혔다. 스님께서 나 때문에 불일암을 떠나신 것 같아 너무도 죄송

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스님께 연락을 드릴 수가 없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대학시절 주일 학교 교리교사를 하면서 만난 아내와 결혼을 했고, 고시 공부를 접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과정을 마치고 2001년 봄, 지금 근무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내가 근무하는 대학에는 안경박물관을 만들어 저명인사 안경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불교와 가톨릭 성직자의 안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고교시절 불쑥 찾아간 기억을 더듬어 김수환 추기경님께 편지를 썼다. 고교시절 추기경님을 찾아간 이야기, 그때의 당돌했던 고등학생이 대학교수가 되었고 추기경님이 쓰시던 안경을 우리 대학 박물관에 간직하고 싶다는 말씀을 전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추기경님은 친필 편지와 함께 평소 쓰시던 안경을 등기소포로 보내 주셨다. 그 이후로 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매년 추기경님께 전해 드렸지만 직접 만나 뵙고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정 스님과 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난 2003년 스님이 ‘맑고 향기롭게 광주 강연회’에 오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나는 조심스레 인시를 드렸다. 무뚝뚝하신 스님이셨지만 활짝 미소를 지으시며 내가 사회인으로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셨다. 그러고는 “이제 진짜 공부를 해 보아라!” 하시며 훌연히 그 자리를 떠나셨다. 그 이후 내 게으름 탓으로 그간 스님의 소식을 소상히 접할 수 없었고 겨우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나는 갑자기 심한 디스크 증상이 생겨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여 목포로 내려가는 고속열차의 뉴스자막에서 스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스님과 내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스님이 폐암으로 심한 통증과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종교를 뛰어넘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그저 믿어 주고 지원해 주시며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꾸짖어 주셨던 법정 스님. 그러나 이제 대학시절 그랬던 것처럼 불일암 뒷마루에 앉아 멀리 조계산 자락을 바라보며 스님과 담소를 나누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한 소망이 되어 버렸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매일 새벽이면 항상 내 이마에 손을 얹고 “주님, 우리 현철이. 연타고 권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수십 번 반복하셨다. 전라도 사투리로 좋은 인연 많이 만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호감을 얻게 해달라는 뜻이다. 할머니의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뜻이 담겨 있는지, 그리

고 지금까지의 소중한 만남과 인연들이 모두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이라는 사실을 마흔 살이 넘은 뒤에야 겨우 깨닫게 되었다.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은 나에게 긍정의 메시지,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 행복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 덕분에 나는 내게 닥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대학 강단에 서는 사람이 되었다. 추기경님과 법정 스님, 그리고 할머니는 내게 과분한 사랑을 주신 분들이다. 나는 이분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출처 : 생활성서 2010년 8월호

2010년 기부금 소득공제자료 발급

2010년 한 해 동안 본 모임에 보내주신 정성스런 후원금과 물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호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올해 보내주신 후원금 및 물품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현황을 파악한 후 내년 1월 10일 즈음에 개별 우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회원등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직접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후원금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재발행해 드립니다. 참고로 본 모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어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 소득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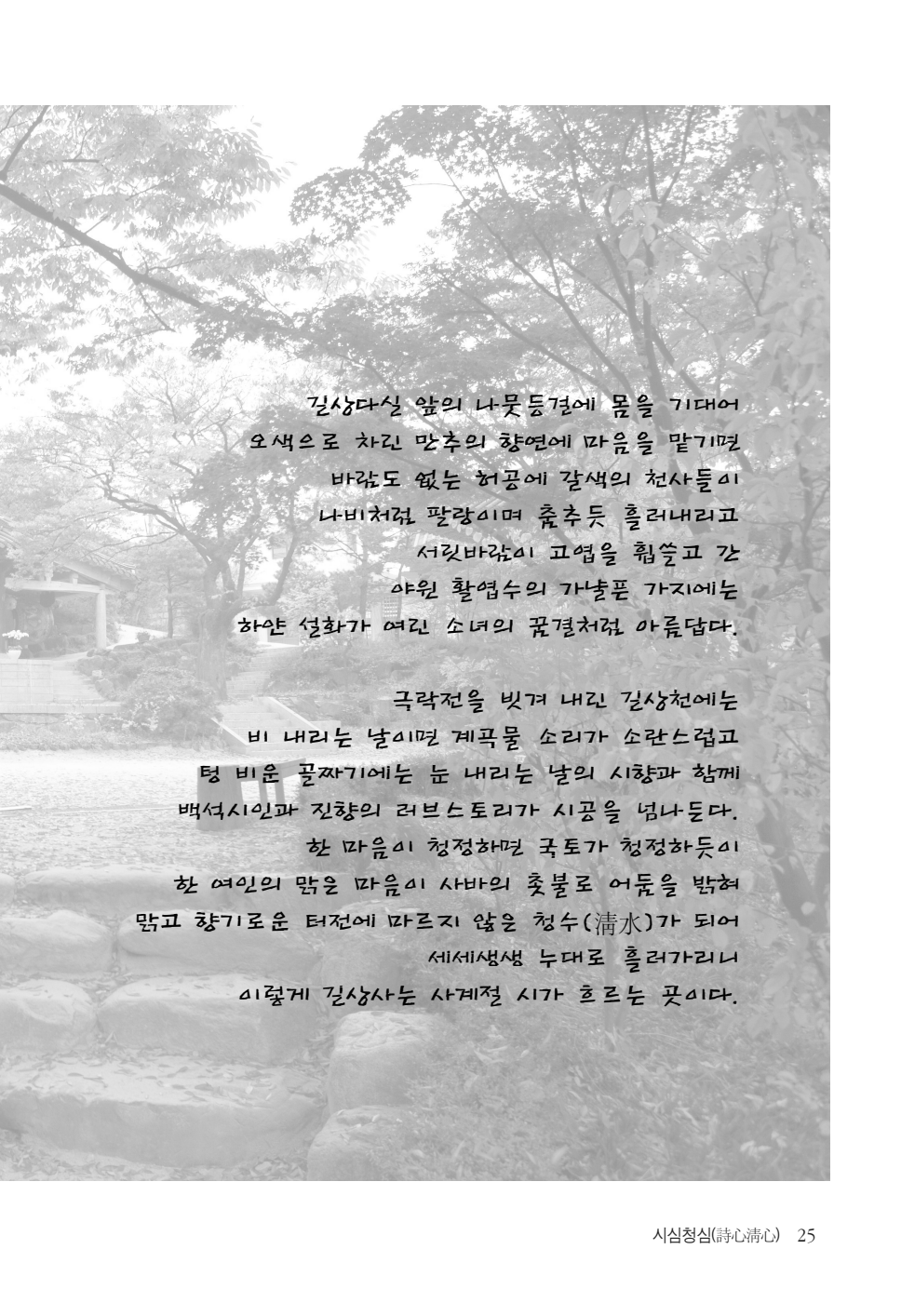
시(詩)가 흐르는 길상사

지우 허 태 기 (전문포교사, 시인)

도심의 숲속에 자리잡은 아담한 사찰 길상사!
 행지실(行持室) 매화꽃이 북풍을 밀어내고
 송풍각(松風閣)의 영춘화가 봄소식을 알리면
 길상사 뜨락에는 봄꽃으로 만발한데
 노란 개나리 빨간 진달래
 하얀 철쭉이 길상사를 단장하고
 물 오른 나목에서는 연두 빛 새순이 작설처럼 주뻗는다.

신록 우거진 무더운 바깥길에
 선방 앞의 모란을 즐리운 듯 고개 늘어뜨리고
 극락전의 능소화는 푸른 머리카락 풀어헤친 채
 넝쿨 따디따디 주홍등불 매달아
 비오는 밤 처마 밑으로
 그리움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려보낼 때면
 꽃무릇의 붉은 짝사랑이 사무치게 슬프다.

건들바람 따라 일주문을 들어서면
 단풍나무에선 새빨간 단풍이 훑불마냥 타오르고
 범종각 편액에 머리 조아린 푸른 소나무 아래로
 애석(愛石)에 어진 관음의 그윽한 미소가 영원을 감싼다.



길상다실 앞의 나뭇등걸에 몸을 기대어
오색으로 차린 만추의 향연에 마음을 맡기면
바람도 없는 허공에 갈색의 천사들이
나비처럼 팔랑이며 춤추듯 흘러내리고
서릿바람이 고엽을 휩쓸고 간
야원 활엽수의 가냘픈 가지에는
하얀 설화가 여린 소녀의 꿈결처럼 아름답다.

극락전을 빙거 내린 길상천에는
비 내리는 날이면 계곡물 소리가 소란스럽고
텅 비운 골짜기에는 눈 내리는 날의 시향과 함께
백석시인과 진향의 러브스토리가 시공을 넘나든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듯이
한 여인의 맑은 마음이 사바의 훗불로 어둠을 밝혀
맑고 향기로운 터전에 마르지 않은 청수(淸水)가 되어
세세생생 누대로 흘러가리니
이렇게 길상사는 사계절 시가 흐르는 곳이다.



아름다운 만남, 감성을 열어주는 곳

- 진인선원 봉사팀 -

박 지 연

여행을 가면 순간순간 감성이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사람들은 여행을 가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진인선원에서 보내는 하루 동안은 저의 모든 감성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섬세하게 말입니다.

진인선원에 봉사를 나간 것이 2006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기억의 편린(片鱗)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햇볕에 반짝이며 훑날리는 흙씨, 장독대의 따뜻한 온기, 겨울 바닥의 발 시림, 깨끗한 화장실 카펫의 폭신함, 습기 찬 주방의 끈적임, 속에 무엇이 들어 있지 않을까 하며 발을 넣는 장화의 바람소리, 때로는 더러운 물이 얼굴에 튀길 때의 쩡그림. 또 무엇이 있었을까? 진인

선원은 저를 가게 하는 끌림이 있습니다.

경복궁 건춘문 앞에서 봉사자들을 실은 차는 파주 진인선원으로 시원스럽게 달립니다.

오전에는 장 담그고, 낙엽을 쓸고, 빨래를 널고, 여러 곳을 청소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둘러앉아서 사무국에서 전달한 것을 듣고 의논을 하기도 하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인선원 활동 중에서 어르신들과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오후 활동은 본격적으로 감성을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오십 분씩 두 번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하는 작고 소박한 공연.

“어르신 안녕하세요?”하고 어르신께 인사를 합니다.

어르신께서 좋아하실까?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노래를 듣고 계신 어르신 곁으로 갑니다. 어르신께서 박수 치시도록 도와드리려고 손을 잡아드리자 어르신은 얼굴을 찡그리며 노려보십니다. 제 손을 한 손으로 미시며 무릎에 다시 두 손을 올려놓으십니다. “나 아파. 손이 아파” 하십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슬며시 어르신 손등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춥니다. 이번에는 아

시는 노래였는지 노래를 따라 부르십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 “어르신 노래 잘 부르세요.” 하며 영석 오빠의 장단은 뒷전으로 하고 노래장단에 맞추어 어르신 손을 맞잡고 손뼉을 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손을 잡으니 처음부터 좋을 수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계속 어르신과 같이 장단을 맞추다 보면 서로 어색한 마음은 줄어들고 어느새 같이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가만가만 장단을 맞추시다가 팔을 들어 올려서 박수를 치시는 모습을 보면, 쓰시지 않던 근육들이 이 시간에 좀 더 쓰실 수 있게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노래가 두 곡 세곡이 이어지는 동안 한 어르신의 무




를 곁을 떠나지 않고 손잡고 눈을 마주봅니다. 그러면 어르신께서는 “나이가 몇 이야?” “시집 가야겠네” “어디에서 왔어?” “멀리서 오셨네” 하고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가족이 오는 시간을 빼고는 한 어르신과 마주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달 같은 노래, 같은 쿵쾅쿵쾅 장단이지만 끝나는 시간이 되어 어르신께서 “어휴 벌써 끝났어?” 하시면 보람되게 보냈다는 생각에 뿌듯해집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누고 오후활동을 마칩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예쁘다.” 해주십니다. 흔한 말이지만 어르신의 얼

굴에 진정으로 말씀해주는 마음이 보입니다. 다음 달에도 어르신의 ‘카사노바’를 들을 수 있기를, 어르신의 춤사위를 볼 수 있기를, 박수 어르신의 박수를 제가 또 따라할 수 있기를, 또 예쁘다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어르신과 노는 시간에 빠져서 놀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께 힘을 드리고 오는 건가요?

무엇을 베풀었기 보다는 알찬 하루를 지내게 된 마음에 꿀단지처럼 받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고 회원들과 청소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 진인선원은...

진인선원(眞人禪院)의 포괄적인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보현회 진인노인요양원’이다. 치매노인전문요양시설로 부처님의 자성삼보(自性三寶) 사상이념으로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 대승 보현보살 참선 수행 중심의 실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1968년 재단법인 ‘파평자애원’으로 설립된 후, 1985년에는 재단법인 ‘대한불교 대비양로원’으로, 1999년에는 ‘사회복지법인 보현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1년 노인전문요양시설 ‘진인선원’이, 2004년에는 ‘진인 실비 요양원’이 개원되었다. 2010년 현재 188분의 치매·중풍 어르신이 입소해있다. 맑고 향기롭게는 1995년도부터 진인선원에 원내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하실 분은 매주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20분까지 경복궁 건춘문 앞으로 오시면 된다.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마음을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늘 지니고 살기 위해
참선수행을 하고 좋은 글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외로운 이들, 결식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덜어주기를 성심껏 합니다.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나를 찾기 위한 연습

- 새신도 교육팀 -

관월지 노 현 선

일요일 아침, 일주문을 들어서면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된다. 오늘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낯선 이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나는 ‘새신도 교육팀’에서 봉사하고 있다. ‘새신도 교육’은 길상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설레면서도 편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다. 매주 일요일 회 후에 1시부터 길상사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설법전 소강당에서 간소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인연들이 오랫동안 길상의 터에 머물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바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이런 내가 그래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는 단어 때문인

것 같다. 살아오면서 만난 인연들이 스승이 되어준 덕분에 여기에 내가 있고, 내 삶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인과법, 인연법, 수행도 병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느낌이 가끔 스칠 때가 있었다. 4주 과정의 교육을 하면서 그동안 모르고 지나친 것들, 기본적인 사찰예절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자라는 이름으로 너무 당당히 행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부끄러워질 때도 있었다. 새신도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활동이다. 참회도 하고 남겨진 발자국도 보면서 마음공부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보람도 있다. 새신도 교육에 참여한 한 가족(4명)은 타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불교에 대해 알 수 있고 경험해 보아서 좋았다고 하였고 108배를 하는 날에는 참가자들이 참회의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 얼떨결에 동참하게 됐지만 불교에 다가설 수 있었고 스님을 가까이서 뵈고 좋은 말씀까지 듣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도 덧붙였다. 그 분들이 이 짧은 만남으로나마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고, 나를 찾는 첫 걸음을 떼어 진정한 수행의 길을 찾기를 바랄뿐이다.


다행히 지도법사 스님께서 차담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올바른 수행방법을 가르쳐주셔서 우리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스님과의 대화 시간 외에도 절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의식곡 및 찬불가를 배우는 시간 등의 일정이 다 끝나면 마음이 밝아지면서 오늘 만난 인연들에게 모두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생겨난다.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서 베푸는 기쁨과 받는 기쁨을 모두 경

험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있을까.

새신도 교육을 약 1년 정도 해 오면서 가끔 낯익은 얼굴들이 신행단체에서 봉사하시거나 본격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럴 때 참 기쁘다. 얼굴에도 마음에도 미소가 번진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다. 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현혹되어 있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이 내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 나를 찾아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망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도 행복하다. 잠시라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었으니…….

열정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지도법사 정산스님께 정말 감사하다.

스님, 함께 봉사하는 새신도 교육 팀원들, 그리고 새신도 교육 시간에 인연 맺은 모든 분들이 신묘년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길 간절히 바란다. 합장. 



2010年 불교를 만나다

다하루 김 여 정

20대. 한창 ‘나’를 알고 싶고 분석하고 발전시키고 싶은 나이.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일하는 좋은 직장을 원했었고, 그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암묵적인 요구들에 따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채우려는 욕심이 생겨서, 생각이 생각을 낳으며 마음이 아팠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움직인다.

1년 전, 불광전이 흐르는 산책로를 따라 도서관에 들어갔다. 이곳은 책이 많지 않아 관심가는 책이 눈에 쉽게 들어오고, 자연과 함께 유유히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자료실에서 책을 고르다가 ‘우리시대의 마음공부’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 마음 다스리기가 주제인 이 책의 저자는 불교학을 전공하신 분이였다. 이 책을 통해서 불

교가 무엇을 다루는지 알게 되었다.

작년 3월, 어느 날 법정스님께서 입적하셨다. 나는 이 책방 저 책방 다니며 법정스님의 책을 열심히 모아서 읽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어쩌다 한두 권 사보았지만 어느덧 적극적으로 법정스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길상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불교입문 강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봄 학기가 개강하여 늦게 알게 되어 아쉬웠다.

5월, 부처님 오신 날이 돌아왔다. 나는 약도를 지니고 놀러가는 마음으로 길상사에 가게 되었다. 떡을 받고 음악회가 열리고 어떤 보살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정말 반가웠고, 자연스레 입문강좌를 들어보기로 했다. 여름까지 길상사에

부지런히 다니며 들었더니 어느새 강좌가 끝나가면서 수계식이 다가왔다. 기존에 다른 종교를 지니고 있었기에 계와 법명을 받는 것이 두려웠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마침 오랜만에 집으로 오신 외할머니께만 몰래 말씀드렸다.


현재 절에 계시는 외할머니가 “니가 우째 이런 걸 보노?” 하시며, 법정스님 책을 함께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저 호기심으로 듣게 된 입문강좌를 끝내고, 수계식 때 법명을 받았다. 사람들로 꽉 찬 설법전 안에서 주지스님의 낭랑한 목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수계식이 끝나고, 나는 정근상을 받았다. 1번의 결석. 그날 수업에 가기 싫다고 마음이 시킨 일이었다. 정근상은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하루 빠진 날의 증명이기도 하다. ‘다음에는 개근상을 타리라’라는 마음을 가지며 집에 돌아왔다.

그로부터 1달 뒤에, 입문강좌에 이어 열린 ‘기초경전반’을 참석하게 되었다.

‘불교경전이라니, 그런 심오한 걸

배워도 되나?’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가서 들어보니 괜찮았다. 입문강좌를 통해 불교에 대해 맛보았다면, 기초경전반에서는 지각작용과 생각,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생각을 알아차리고 비우는 것을 배웠다.

‘마음의 일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다니는 걸 알게 되신 어머니는 성당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신다. 글썄...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불교를 통해 나를 찾는 과정이 너무나 놀랍다. 2010년, 1년간 불교를 알아가면서 나는 변하는 중이다. 특히, 기초경전반 공부를 하면서 매주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처음 배우는 사람이어서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 수업을 마친 뒤, 남는 것은 무엇인냐고 물으신다면 ‘없다’고 말하고 싶다. 내 습관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모두 비우는 과정을 통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그것이 남은 내 용이기에. 

묘회원(11.27 / 12.5)

(소감: 김광수 모듬장)

11월 27일 묘회원 김장하는 날. 특별봉사로 토요일인데도 20여명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혹시나 참여가 저조할까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 배추 천연 포기기를 다른 팀들이 다듬기와 절임을 하고 우리 팀은 배춧속 만들기와 절인 배추를 물로 세척했다. 배춧속에 들어갈 양파를 썰는데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렁, 여기저기서 채치기를 하면서도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들에서 끈끈한 정을 느낀다.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정성을 만들어 나누어주는 이 장소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에 즐거움을 만끽해본다.

비가 오고 꽤나 쌀쌀한 날씨에 절인 배추 세척작업이 만만치가 않았다. 따뜻한 모과차로 추위를 잊어가면서 작업을 마치려 했는데 물탱크에 받아놓은 물이 모자라서 마무리를 못해 못내 아쉬웠다.

12월 5일은 올 한해 활동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동대문에서 만나 함께 등산을 하면서 2010년을 돌아보았다. 만장일치로 내년 심

부름을 도맡아줄 팀장에 한인섭 회원이 결정되었다. 앞장서서 이끌어주실 새 한인섭 팀장 파이팅!

진인선원(12일, 매월 둘째 일요일)

(소감: 이금재 모듬장)

2010년을 어르신들과 함께 마무리하였다. 옥담화님의 한국무용, 김경옥님과 김준옥님의 경기 민요, 김창수님의 웃음치료, 그리고 이경원 풍물패의 풍물이 어우러져 한나절을 즐겁게 이루었다. 내년 2011년 모듬장은 유임으로 결정되었다. 저녁에는 인사동 시천주에서 고나경님, 박용거사님, 이미정, 장복순, 신숙영님, 모아라 간사님과 함께 2010년을 마무리하는 회향을 하였다.

전화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

봉사자별 월간활동 공유

(담당: 엄경숙 모듬장)

● **이순덕**: 어르신들께서 김장김치를 너무 잘 받았다며 고마워하셨다. 특히 다른 복지시설보다 더 많은 양을 지원해주는 것을 보고 더욱 더 감사해 하셨다. 어르신 한 분은 김장김치를 보관할 때가 없어서 땅에 묻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살았다며 허허 웃으셨다. 지난번 보내드린 바지가 너무 따뜻해 방에 옷풍이 심한데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신다. 김OO 할머니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4대강사업 때문에 복지에 산이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셨고, 연평도 사건을 뉴스로 보면서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 불안해 하셨다고 한다.

● **오은주**: 어르신 세 분을 직접 찾아 뵙고 나눔행사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드리고 왔다. 그리고 신선 설렁탕을 구입해서 전달해드렸다. 최OO 어르신은 뜻밖의 방문과 선물에 생일선물 받은 것 같이라며 고마워하셨다. 어르신들께서 김장을 너무 잘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서울노인복지센터(월요일)

(담당: 권미자 모동장)

● **13일** - 12월 9일에는 '좋은인연'이라는 이름의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자를 위한 조출한 송년회가 있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는데 해마다 이날은 한 해 동안 노인센터를 후원해준 기업체나 단체, 개인 등에게 감

사의 인사를 하고 모든 봉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식사를 한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르신들도 참 많이 계셨다. 그 분들 말씀이 나이가 많다고 앉아서 대접만 받기보다 내 몸도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노인센터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도 행복해져 다른 특별한 운동을 안해도 늘 건강하다고 하셨다.

● **27일** - 연말이라 그런지 기업체나 단체에서 봉사를 오시는 날이 많아졌다. 많은 봉사자들이 오셔서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식사하시도록 돕는 일은 좋지만 어떤 특정한 때에만 봉사단체가 더 많아지는 건 좀 아쉬운 생각이 든다. 꼭 5월이나 연말이 아니라도 주위엔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승가원(1, 3주 일요일)

(담당: 홍정근 봉사팀장)

2010년 마지막 요가활동이 진행되었다. 요가 활동을 하기 위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아 봉사자와 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발을 맞대고 균형을

잡는 동작을 했다. 장난꾸러기 동욱이는 요가할 때만은 진지하게 잘 따라했고, 민경이와 가영이는 모든 동작을 유연하게 잘 따라했다.

올 한 해에도 열심히 요가지도해 준 이숙인, 김영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또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박용국, 이형진 학생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 (매주 목, 금요일)

(담당: 최두리 모듬장)

• **1, 2일** - 맑고 향기롭게 겨울김장. 마음을 열고, 나누고, 모으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행복 만들기. 몸은 조금 힘들어도 참 즐겁다. 그러기에 3,300여 포기나 되는 김치를 빛의 속도로(?) 해치울 수 있었다. 남은 인생 우린 몇 번이나 맑고 향기로운 김장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한국·진흥·경기상호금고 직원, 길상사 신도, 길상사 신행단체, 불교대학 법우, 맑고 회원, 나눔회 회원, 개인봉사자, 그리고 주축이 된 밀반찬조리장 자원활동가들, 살인미소와 비타민을 제공하신 주지스님 등 모두에게 감사한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더욱 행복하다.

• **16, 17일** - 목요일 아침은 한파주의보 때문에 모든 게 정지된 듯하다. 길바닥도 미끄러워 다리에 힘을 주며 걸어야 했다. 조리장의 수도도 얼어 물이 나오지 않는다. 주방 안의 수도는 그나마 조치를 한 결과 다행히 물은 나온다. 겨울이면 좁은 주방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 비좁다 보니 일이 더욱 힘들다. 금요일은 전날 늦게부터 내린 눈이 아침까지 이어져 적은 인원이 모여 활동했다.

(총 371가구, 단체 1곳)

- 1째주 - 김장
- 2째주 - 알배추쌈, 버섯야채볶음
- 3째주 - 고등어조림, 물미역무침
- 4째주 - 돌자반김무침, 우영조림
- 5째주 - 불고기, 가래떡

• 결식후원금 11/1 ~ 11/30
17,354,500원

결식이웃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서울모임

**2010년 서울지부 회원총회 및
송년모임 보고**

(사)맑고 향기롭게 2010년 서울지부 회원총회 및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22일 오후 7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행사는 1부 회원총회, 2부 송년모임으로 진행되었으며, 1부 회원총회는 2010년 활동내용 보고, 2011년 사업계획 보고 후 참석회원들의 의견취 및 동의를 구했습니다.

2부 송년모임은 만남과 화합의 시간으로 모범자원봉사자 회원시상, 이사장 스님과 회원들 간의 대화마당, 행운권 추첨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사장 덕현스님은 “법정 스님은 본 모임의 영원한 ‘회주(會主)’이니 앞으로 어려운 마음에 ‘어른 스님’이라 칭하던 것을 맑고 회원들은 ‘회주 스님’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호응하였고, 일부 회원들은 맑고 향기롭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홍정근 봉사팀장의 사회로 시종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예정시간을 한 시간 넘긴 밤 10시에 끝났으며, 이계진 이사, 각 봉사모임의 모듬장을 비롯한 93명의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먹을 거리를 비롯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분들과 참석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0년 모범봉사자:

이화자(모희원 봉사),
장재행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봉사,
박봉례(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

※ 행사진행·영상제작 - 홍정근, 방송도움
·선물구입 - 모아라, 행사준비·사진촬영 - 연혜숙, 2010년 사업보고 - 이성학, 2011년 사업계획 - 김자경

1월 주말 선 수련회 일정변경 안내

매월 셋째 주말(신참), 넷째 주말(구참)에 실시하는 길상사 - 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 수련회가 2011년 1월, 사중 행사로 인한 지도법사스님의 부재로 축소연기 실시됩니다.

• 1월 주말 선 수련회: 다섯째 주말, 1월 29일~1월 30일(신참/구참 구분 없이 접수가능)

2011년 2월부터는 다시 셋째, 넷째 주말 수련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사)맑고 향기롭게 02-741-4696/7
- 이메일: kilsangsa@templestay.com
- 담당: 香羅 모아라

선 수련회 아침공양 자원 활동 모집

매달 셋째·넷째 주말에 열리는 길상사-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 수련회 참가자들을 위해 아침공양 준비를 거들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새벽에 불에 참석하시거나 집이 가까우신 분들 중 마음을 내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모집인원: 3명 내외
- 하시는 일: 과일 깎기, 간단한 반찬조리
- 일시: 매달 셋째, 넷째 일요일
- 문의: 02-741-4696/7 香羅 모아라

기부금 소득공제자료 업무보조 자원활동가 모집

기부금 소득공제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회원님들께서 받을 수 있도록 업무보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중

학생 이상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단순업무입니다. 지로후원금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자료를 받기에 2~3일이 지나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단체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인증기관으로 자원활동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일시: 2011년 1/5 ~ 1/7(변동이 있을 수 있음) 오전 9시 ~ 오후 4시
- 대상자: 중학생 이상

봉사자가 직접 봉사실적 인증서(vms) 발급 가능

본 모임 자원활동가를 비롯한 타인 인증기관 자원봉사자께서는 인터넷과 컴퓨터, 프린터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본인의 봉사시간을 확인하고, 봉사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모임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분은 <http://www.vms.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이름을 입력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본인 확인 후 본인에게만 부여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진행순서: 1.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홈페이지에 접속 → 2. 자원봉사자를 선택한 후, 아이디(ID)와 패스워드

(PW)를 입력하여, 로그인→3. 본인 이름 확인 후 “MY VMS”를 클릭→4. 본인의 봉사시간을 비롯한 각종 정보 열람가능. 봉사 실적을 조회하거나 봉사 인증서를 출력하려면 마이메뉴-봉사실적조회를 클릭→5. 봉사실적조회 기간을 설정→6. 발급할 봉사일자 선택→7. 발급을 클릭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뜨면 비밀번호 입력→8. 인증서 양식이 화면에 보이면 상세내역 포함(봉사 내용)을 선택→9. 발행을 클릭하면 프린터 출력 완료(봉사 인증서를 계속 발급하려면 출력할 일자를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해피빈 - 콩이 만드는 행복한 기부

세상에는 많은 콩이 있습니다. 강낭콩, 땅콩, 완두콩, 검은콩, 노란콩... 그 많은 콩 중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콩이 바로 해피빈콩입니다. 해피빈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사이트로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도 해피빈을 통하여 온라인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메일을 보내거나 배너를 클릭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콩을 무료로 나눠 주고 있는데 그 콩 하나

의 가치는 100원. 네티즌들은 콩을 모아 원하는 기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를 이용하는 후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콩기부를 통해 본 모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콩 하나는 작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커지는 법. 언제라도 소외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해피빈을 통해 도울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의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맑고 향기롭게 모임 네이버 해피빈 주소
<http://happylog.naver.com/clean94.do>
 12월 30일 현재 1,120,900원(797명 모금)

법정넷이 개편되었습니다.

법정스님 추모 페이지였던 법정넷(<http://www.beopjeong.net>)이 추모사이트를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인물페이지로 기획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행자로서의 스님뿐만 아니라 자연주의자, 생태주의자 등 다양한 모습을 담는데 주력했으며, 은사 효봉스님,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같은 내용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실 분은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것은 법정넷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발송 봉사자 모집

소식지 발송 작업은 매달 초(3~5일) 사이에 이뤄지며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전후로 길상사 내 '설법전 또는 소강당'에서 행해집니다.

매월 5,000여 부를 발송하며, 평균 1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때론 일손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시간적으로나 힘에 겨워 참여할 수 없었던 분이라면 사무국으로 신청하시면,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편히 받아보는 소식지 한 권에는 많은 분들의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주시고, 소중히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만남의 날, 분기에 한 번 실시

작년까지 매 달 한 번 이루어졌던 회원만남의 날이 2011년에는 분기에 한 번(3, 6, 9, 12월)으로 조정됩니다.

시간 요일 등 자세한 것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인드라마생협 연대 물품구매 중단

본 모임은 그간 불교생협연대에 단

체회원으로 등록, 회원님들의 물품 구매를 권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교계의 낮은 호응에 급기야 올해 불교생협연대가 해체되어 부득이 단위 생협인 인드라마생협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 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모임의 특판 형태 물품 구매가 인드라마생협과는 연대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 2010년으로 본 활동을 중단하오니 회원님의 양해 바랍니다.

맑고 향기롭게 이메일 변경

이메일 주소가 wlotus94@hanmail.net에서 clean94@hanmail.net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식이웃을 위한 자원 활동가 모집

멀리 있는 행운보다는 가까이 있는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반 ~
- 밀반찬 배달 자원활동: 매주 금요일 오후

의류 재활용 소품 만들기

안 입는 헌옷을 이용해 소품을 만들어보지 않을까요? 서툴지만 한 땀 한 땀 채워가는 자연살림법 익히기

강좌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저희 의류 재활용 팀으로 오세요. 헌 옷이 새로운 물건으로 변신합니다. 바느질법(미싱)도 배우고 헌옷의 가치를 새로 만들어 주는 지혜로운 회원이 됩시다. 의류 재활용은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소모임입니다.

- 맑고 향기롭게 환경지킴이 02)741-4696/7

지난 다이어리, 안 쓰는 공책 보내주세요.

노란 예쁜 꽃도 그리고 빨간 사과도 그리고 어젯밤 꿈에 나타난 도깨비도 그리고...

얼마 전 회원님께 부탁을 받았습니니다. 지난 다이어리나 안 쓰는 공책이 있으면 모아줬으면 좋겠다고요. 동방사회복지회 아이들이 그림공책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해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니 이 또한 친환경적인 생활이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더군요. 안 쓰는 공책 모아두어야 짐만 되고 아이들한테 유용한 쓰임이 있고... 이런 제의를 해주신 동방사회복지회 선생님이 참 현명하시더라구요. 회원 여

러분! 혹 집에 안 쓰는 공책이나 지난 다이어리가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아이들의 꿈으로 예쁘게 그려질 공책을 제공 받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02)741-4696

1월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길상사- 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 수련회 / 신참반·구참반 통합운영: 1월 29~30일(다섯째 주말) / (* 1월은 사중 행사로 인한 지도법사스님의 부재로 축소 연기 실시됩니다. 2월부터는 다시 셋째, 넷째 주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 ※ 회원만남의 날은 분기(3, 6, 9, 12월)에 한 번 실시됩니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아동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 활동 / 매주 목, 금요일(1월 6, 7, 13, 14, 20, 21, 27, 28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묘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일손 돕기 정기자원활동 / 1월 9일 / 오전 8시 30

분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
(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활동가(※ 신
정 연휴 관계로 이번 달은 둘째 주에
합니다.)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
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월 9일) 오전 8시 20분
경복궁 건춘문 앞 출발
- 서울시립수락양로원 노래봉사 자원활동
/ 1, 2, 3, 5주 목요일(1월 6, 13, 20일) 오
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
철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 집결 / 일
반 자원활동자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1월 3, 10, 17, 24일),
매월 첫째 수요일(1월 5일) 오전 10
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
리, 수저 나누기 등 / 다른 요일 자원
활동자도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자 교
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
/ 첫째, 셋째 일요일(1월 2일, 16일) / 오
전 9시 30분~12시 / 청소년 봉사자
- 전화말벗봉사 정기모임 / 1월 10일(매달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 서울모임 사
무실

- 국군백제병원(고양시 덕양구) 내 법당
점심 조리봉사 / 매월 둘째, 셋째 일요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1월 5, 12, 19,
26일) 오후 1시 30분(삼부, 로션, 세럼,
한방비누 순으로 만듦) / 소강당 옆 거
사림 / 선착순 8명 마감 / 재로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강좌 / 매주 화요일(1월 4,
11, 18, 25일) 오후 1시 30분 / 소강당 옆
거사림 / 선착순 10명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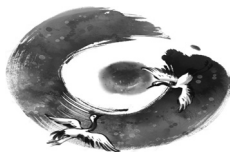
〈기타 활동〉

- 봉사팀 모듬장 회의 / 1월 25일(매달 넷
째 화요일), 오후 7시 30분 / 서울모임
사무실
- 소식지 발송 / 1월 5일(분류 12월 30일)

일반사업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부산모임(051-898-2672-3)

1월 부산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몸어르신 밑반찬 지원활동
5 / 12 / 19 / 26일(매주 수요일)
10:00~12:00
- 장애우 이동목욕
5 / 12 / 19 / 26일(매주 수요일)
09:00~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보조 및 시설정화
6 / 13 / 20 / 27일(매주 목요일)
10:00~13:00
- 부산시 노인전문 제1병원 치매 어르신 목욕봉사
6 / 20일(1, 3주 목요일) 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병동 목욕봉사
13 / 27일(2, 4주 목요일)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준비
6 / 13 / 20 / 27일(매주 목요일)
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7 / 14 / 21 / 28일(매주 금요일)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7 / 14 / 21 / 28일(매주 금요일)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 목욕활동
7 / 14 / 21 / 28일(매주 금요일)

09:30~12:00

- 7일(금) 참선모임
(매달 첫 번째 금요일)
- 8일(토) 물론대 종합사회복지관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11일(화)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18일(화) 지역정화활동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18일(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28일(금)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금요일)
- 22일(토)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토요일)



경남모임(055-266-0170)

1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 매월 셋째주 수요일(1월 19일) / 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 / 말벗되어

-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1월 18일) / 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1월 8, 15, 22, 29일) / 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5시(1월 6일)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은비네 외 10가구)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1월 14일, 28일) / 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1월 7일, 14일, 21일, 28일)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1월 26일) / 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 - 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 / 구입문의 ☎(055)266-0170
 - 운영위원회 - 1월 11일(화) 늦은 7시 성주사



대구모임(053-753-8883)

1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
 - ▷ 매주 수요일(5/12/19/26일) / 11시 - 음식조리, 19시 - 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 수시모집
- 소리봉사 / 녹음봉사
 - ▷ 매주 월요일 - 개별녹음 / 정기모임 : 매월 셋째 금요일(21일) 오후 7시 (예정)
- 룸비니동산 자원봉사 활동
 - ▷ 매월 둘째 토요일(8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황금복지관 주방보조 및 기타정리 봉사
 - ▷ 매월 첫째 화요일(4일) 11시부터
- 첫마음 정기 편집회의 / 둘째 토요일(8일) 오후 6시



광주모임(062-236-3129)

1월 광주모임 정기활동 안내



여기는 길상사

<성도제일 법회 및 기도>

불문(佛門)에서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 출가하신 날, 성도하신 날 그리고 입적하신 날을 기립니다. 그중에서도 부처님의 성도(成道)는 모든 중생들의 본성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날을 기념하여 길상사는 전날인 10일(음 12/7) 극락전에서는 철야 다라니 기도를, 길상선원에서는 철야정진을 합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밤 9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또한 11일 성도제일 법회에서는 총무스님을 모시고 소참법문을 듣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뜻을 기리고, 우리도 부처님같이 성도하기를 발원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 법회: 1월 11일 오전 10시, 극락전
- 철야 정진: 1월 10일 오후 9시, 길상선원
- 철야 기도: 1월 10일 오후 9시, 극락전
- 문의: 총무소 3672-5945

- 법정스님 영상설법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월 1,3주 금요일(1월 7, 21일) 오후 2시 법정스님의 영상설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주신 법정스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주 월~금 각화복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사자 20명이 요일별로 조리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쌀, 양념류, 생필품 등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조리시간: 오전 10~12시)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1월 대상도서: 말과 침묵 / 독서지도: 이신(통일사회연구소 소장) / 1월 14일(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2시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사무실 법정기념관
- 건강을 위한 티벳명상
매주 둘째 금요일(1월 14일) 오후 7~9시. 지장왕사 4층 법당
명상지도: 나무 법사
- 무소유 카페 개점했습니다.
062)224-0045

<불교대학 겨울특강>

길상사 불교대학의 겨울특강이 1월에 열립니다. 특강은 불교대 학생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모든 분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 주제: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 일시: 1월 16일(일), 23일(일) 오후 2시
총 2회로 연속강의입니다.
- 강사: 조무아
- 문의: 교무실 3672-0036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법회 후에는 길상사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새신도 교육’이 열립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후 1시~2시 30분에 설법전 소강당에서 진행합니다.

- 프로그램
1주차: 불교란 무엇인가?
2주차: 예불문 공부
3주차: 나를 깨우는 108배
4주차: 생활 속 수행
5주차: 스님과의 대화
- 지도: 총무 정산스님

<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및 기도>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토요법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설법전
- 삼천배기도 / 1월 8일(토) 8시 반
- 극락전 기도 /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6시
- 지장전 기도 /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6시
- 거사림 정기법회 / 1, 3주 일요일 오후 1시 / 설법전
- 보현회 정기법회 / 매달 음력 초하루 / 1월 4일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 매달 셋째 월요일 / 1월 17일 오후 1시
- 지장회 정기법회 / 매달 둘째 월요일 / 1월 10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 매달 넷째 화요일 / 1월 25일 오후 1시
- 보리회 정기법회 / 매달 첫째 월요일 / 1월 3일 오후 1시
- 청년회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도서관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소강당
- 청소년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도서관

“2011년 신년 음악회”에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나눠 주세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책읽기 등 양질의, 유익한 문화생활을 소외 이웃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사)맑고 향기롭게 서울지부에서는 뜻 깊은 공연 단체 후원 및 소외 이웃과 함께하는 “**동그라미 사랑 나누기**”란 문화 나눔 활동을 새해부터 시작합니다.

동참 방법은 매 문화 활동 시 소외이웃 1인 관람료의 일부를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문화 활동으로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단의 신년 음악회**>를 소개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울지부에서는 이번 음악회에 2010년도 장학생(30명)과 친구들, 밀반찬 후원 대상 가구 중 청소년들을 초청코자 하며 R석 3만 원 티켓의 1/3 비용인 1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

또 한 사람의 이웃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새해를 열게 될 것입니다.

- 공연명 :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단 신년음악회
에티오피아 여성, 소녀 돕기(염소 한 마리의 희망)
- 일 시 : 2011년 1월 19일(수) 오후 8시
- 장 소 : 예술의 전당
- 후원 문의 : 맑고 향기롭게 서울지부
02)741-4696~7
- 후원 계좌 : 외환은행 141-22-01683-9
예금주: 맑고 향기롭게



달력 이야기

미색 바탕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빨테 안경 하나, 그 밑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삶은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맑고 향기롭게 - 길상사’ 2011년 달력 표지의 모습입니다.

올 해 달력은 법정스님 유품과 스님의 간결한 가르침으로 채워졌습니다.

안경, 밀짚모자, 작은 불상, 염주, 필기구 등 스님의 유품은 하나같이 작고 소박하더군요. 특별할 것 없는 물품들이 왜 이렇게 여운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품 하나에 여백 많은 달력 그림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마치 정갈한 수행자의 방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달력 디자인이 너무나 깔끔하고 좋아요.”

“귀한 분에게 선물하려고 하니 한 부 더 얻을 수 없을까요?”

달력 발송 후에도 이런 전화가 자주 옵니다. 맑고 향기롭게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고 회원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보니 (필요한 만큼만 찍어) 추가 발행에 어려운 점이 많군요. 일일이 회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획과 사진 촬영에 수고하신 길상사 우경거사에게 늦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달력을 보면서 채움보다는 비움이, 내용보다는 여백이 더 소중함을 느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